

# ‘출루의 달인’ 추신수, 48경기 연속 성공

보스턴전 선발출전 볼넷 2개 기록...현역 선수 최장 타이 기록  
2경기만 더 이어가면 1923년 베이브 루스 50경기 따라잡아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48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해 현역 선수 최장 기록에 타이 기록을 이뤘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출루에 성공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2루수 땅볼에 그친 추신수는 3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흘려보낸 뒤 볼 4개를 연달아 골라냈다. 지난 9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4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전날 보스턴전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고 이날 선발 라

인업에 복귀해 연속경기 출루 행진을 계속했다. 이미 추신수는 지난 9일 디트로이트전에서 1998년 훌리오 프랑코가 세운 종전 텍사스 구단 단일 시즌 최장 연속경기 출루 기록(46경기)을 갈아치웠다. 추신수는 2001년 당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던 알버트 푸

홀스(LA 에인절스)와 2015년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가 세운 현역 선수 최다 연속경기 출루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추신수는 2경기만 더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이어가면 베이브 루스가 1923년 달성한 50경기를 따라잡는다.

역대 메이저리그 이 부문 최장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이던 1949년 7월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9월 27일 워싱턴 내셔널스전까지 이어간 84경기다.

대기록을 작성한 추신수는 5회초에도 선두타자로 나서 삼진으로 돌아섰다.

추신수는 4-6으로 추격한 6회초 2사 2루의 찬스에서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안타성 타구를 날렸으나 우익수 앞으로 수비 위치를 옮긴 보스턴 2루수 브록 홀트에 막히고 말았다.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구원 투수 라이언 브레이저를 상대한 추신수는 볼넷을 골라 멀티 출루 경기를 만들었다. 추신수는 후속타 불발로 더 이상 진투하지는 못했다.

3타수 무안타 2볼넷을 기록한 추신수는 연속경기 출루 기록을 이어갔으나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98에서 0.290(338타수 98안타)으로 내려갔다.

텍사스는 보스턴에 4-8로 졌다. 2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53번째(40승)를 당했다.

뉴시스



## 호날두, 레알 떠나 유벤투스로

9년만에 이적...이적료 1308억원·연봉 392억 수준

세기의 이적이 성사됐다. 포르투갈을 넘어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에 합류한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호날두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98에서 0.290(338타수 98안타)으로 내려갔다.

텍사스는 보스턴에 4-8로 졌다. 2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53번째(40승)를 당했다.

호날두는 2022년 6월30일까지 유벤투스 소속으로 뛴다. 호날두가 이탈리아 리그에 몸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08억원)로 드러났다. 유벤투스는 2년에 걸쳐 레알 마드리드에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언론들은 3000만 유로(약 392억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2002년 포르투갈 클럽인 스포르팅을 통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호날두는 이듬해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눈에 띄어 맨유에 입

성했다. 맨유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그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했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5차례나 수상했다.

최근 3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정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통산 성적은 438경기 출전 451골이다. 레알 마드리드 역대 득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우리 구단과 세계 축구계에 가장 영광적인 시대를 쓴 선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차세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리에 A를 평정하고 있는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가세로 유럽 정상 복귀의 꿈을 키우나가게 됐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탈락한 뒤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25일에는 스폰서 행사차 방한한다.

한편 호날두의 유벤투스행으로 이적 시장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 MLB닷컴, 또 추신수 트레이드 언급...“10월에 차이 만들 선수”

트레이드 후보 중 이름값보다 더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선수 10명 꼽아

메이저리그(MLB)에서 48경기 연속 출루를 달성한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현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1일(한국시간)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들 가운데 이름값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 10명을 꼽으면서 추신수를 포함했다.

MLB닷컴은 추신수가 특히 아메

리칸 리그 팀에서 라인업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에 변화를 만들 선수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포스트시즌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옮길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추신수의 높은 몸값이 관건이라고 봤다. 추신수는 2019~2020년 4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텍사스의 선택에 따라 추신수의 트레이드가 결정될 것이라고 MLB닷컴은 내다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 최장 타이인 48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벌인 추신수는 장타력까지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트레이드 카드라고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유망주 영입에 목 말라있는 텍사스가 잔여 연봉 일부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추신수를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에 내주고, 유망주를 데려올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다. MLB닷컴은 클리블랜드 인디언

뉴시스

## 김규은·감강찬 조 해체...대한민국 피겨 페어팀 ‘全無’

개최국 자동 참가권 얻어 국내 최초 올림픽 무대 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페어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김규은(19·감강찬(23) 조)가 해체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감강찬이 6월 중순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연맹에 전달했

다. 김규은은 일단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강찬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만 만들었다.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 눈물은 지독했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

다”며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포기하지 않은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끝까지 110% 해준 파트너 규은이가 더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규강조(김규은·감강찬 조의 애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규은과 감강찬은 개최국 자동 참가권을 받아 국내 페어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 무대에 나섰다. 페어 팀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도 곳곳에 호흡을 맞춰 한국 피겨가 사상 최초로 전 종목에 출전하는 데 힘을 더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에서는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북한의 협대육·김주식 조와의 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시니어 페어 팀이던 김규은·감강찬이 해체하면서 국내 피겨에는 페어 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뉴시스

## “외국인 감독 팀 우승 못한다” 징크스 못 깬 벨기에

월드컵에서 이어지고 있는 징크스 중 하나인 외국인 감독인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는 속설은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졌다.

1930년 첫 대회부터 2014 브라질 대회까지 20번의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예외 없이 자국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국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프랑스는 11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벨기에를 1-0으로 제압했다.

벨기에의 로베르트 마르티네스(45·스페인) 감독은 이번 대회 4강에 오른 국가 중 유일한 외국인 감독이다. 이미 결승에 진출한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50), 준결승전을 앞둔 잉글랜드 개리스 사우스게이트(48), 크로아티아 즐라트코 달리치(52) 감독은 모두 자국 출신이다.

역대 월드컵에서 외국인 감독이 맡은 팀의 최고 성적은 준우승이다. 1968년 스웨덴 월드컵 조지 레이너(잉글랜드) 스웨덴 감독과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른스트 하벨(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감독이

뉴시스

## “레알 마드리드, 내 가슴 속에 영원할 것”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낸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새 도전에 나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팬들을 향한 정문의 편지로 작별을 고했다.

호날두는 이적이 발표된 1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 홈페이지를 통해 “나에게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믿었다. 그래서 구단에 이적을 요청했다. 이 해를 주길 바란다”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낸 9년은 환상적이었다. 특별한 형태로 추구를 즐겼던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라운드와 라커룸에는 훌륭한 동반자가 있었다. 팬들의 지지도 엄청났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와 최근 5번의 대회 중 4번 우승을 차지했다. 그들과 함께 발롱도르 4회, 골든슈 3회를 수상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돌려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 가슴 속에 있다”는 호날두는 “회장, 임원, 동료, 감독, 코치, 의무팀, 물리치료사 등 모두가 쉬지 않고 배려해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스페인 축구계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9년 동안 위대한 선수들과 싸운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호날두는 “오랜 기간 많은 생각을 했다. 지금이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유니폼과 (홍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 가슴 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년 전 처음 경기장에서 꺼냈던 발을 다시 하려고 한다. 할라 마드리드!”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호날두는 이날 유벤투스와 4년 계약을 맺었다.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08억원)다. 유벤투스는 2년에 걸쳐 레알 마드리드에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언론들은 3000만 유로(약 392억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2002년 포르투갈 클럽인 스포르팅을 통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호날두는 이듬해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눈에 띄어 맨유에 입성했다. 맨유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그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했고,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5차례나 수상했다.

최근 3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정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통산 성적은 438경기 출전 451골이다. 레알 마드리드 역대 득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뉴시스